

## 광주, 심상찮은 코로나 확산세 ... 이번 주말·휴일도 '집콕'

감염경로 불분명 확진자 대거 발생 ... 3단계 격상 불가피  
외출 삼가고 마스크 쓰기 등 개인방역수칙 철저히 지켜야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진정 국면이 접어드는 모습이지만, 유독 광주에서만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들이 대거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지속하고 있다.

〈관련기사 2·3·6면〉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거리두기를 오는 20일까지 연장한 광주시는 이번 주말과 휴일을 지켜본 뒤 집단감염이 또다시 발생할 경우 일상생활을 일시 중단하는 3단계 격상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방역 전문가들은 "인근 전남 등에선 코로나19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데도, 광주만 추가 신규 감염원이 발생하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시민들도 담당하겠지만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외출을 삼가고, 마스크 쓰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등 방역행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남구, 서구, 북구 주민 1명씩 양성 판정을 받아 각각 광주 465~467번째 확진자가 됐다. 465, 466번 확진자는 감염경로가 불분명하며 467번은 사우나에서 426번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광주에서 감염원 불명 확진자는 30명, 사우나 관련 확진자는 4명으로 늘었다.

앞서 지난 밤사이에도 3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다. 462번 확진자는 북구 우산동에 거주하는 70대 감염경로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463번 확진자는 서구 치평동에 사는 70대 여성인데 하루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광주 445번의 접촉자로 분류된다. 445번 확진자도 아직 뚜렷한 감염경로가 나오지 않고 있다.

광주에선 무증상 감염이 절반(누적 확진자 467명 중 237명)을 넘고,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 발생까지 잇따르면서 당분간 확진자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온다. 지금 이

시각에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는 시민이 1335명에 달해 추가 확진자 발생 가능성이 크다.

박항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광주는 (8·15광복절 집회발) 성립집례교회 집단 감염의 경우 밀접, 밀접, 밀폐 등 세 가지 요소를 갖춘 지하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노래하고, 식사한 탓에 6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다른 지역보다 심각한 상황을 초래했다"면서 "감염원도 파악이 많고, 무증상 감염자도 많아 마스크 착용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줄이는 것만이 최선의 예방법"이라고 말했다.

전남은 지난 9일 밤 사이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총 163명으로 늘었다. 전남 162번은 구례에 거주한 80대로, 전남 134번으로부터 물리치료를 받던 중 접촉돼 자가격리 중이었다. 전남 163번은 10세 미만으로 지난 4일 필리핀에서 입국해 여수로 온 전남 157번의 자녀다.

전남은 특히 한때 69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순천시에서 13일째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등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신규 확진자가 8일째 100명대를 기록하는 등 감소세가 주춤한 모습이다.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는 지난 달 말 400명대까지 급증했지만 이후 300명대, 200명대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 3일부터는 매일 100명대로 집계되고 있다.

한 방역 전문가는 "광주만 유독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코로나19 속주로 의심되는 8·15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을 초기에 방치한 영향이 큰 듯 하다"면서 "이들이 광주 곳곳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감염원 불명의 전파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백운고가 상판 제거 오는 11월 완료를 목표로 철거 공사가 진행중인 광주 남구 백운고가차도의 상판 제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10일 오후 진입로 부분의 상판이 완전히 제거됐고 차도를 덮고 있던 구조물 등이 제거된 채 콘크리트 뼈대가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5면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200만원 현금 지원”

문 대통령 비상경제회의  
4차 추경 7조8천억 편성

문재인(사진) 대통령은 10일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그동안 3차례 추경을 편성했고, 지난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확산하자 이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4차 추경을 편성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8000억원이 투입돼 377만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중 3조2000억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금액이지만, 피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로,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 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여전히 지속되는 고위 위기 상황에서 1조4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119만개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쓰겠



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교까지로 늘려 532만명에

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선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의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해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이번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한편, 정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4차 추경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추경안을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선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이번 추석에 한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완화하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광주비엔날레전시관 1500억들여 신축 추진

기재부 예타 대상사업 선정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신축이 추진된다. 총 예산은 1500억원이다.

광주시는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사업이 기획재정부 심사결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기재부 사전심사 형태인 대상사업 선정은 본심사 대상으로 적합한지, 통과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사전 단계다.

지난 1995년 건립된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은 시설이 노후하고, 건립 당시 짧은 공사기간(6개월)으로 인해 공정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아 누수 등이 발생해왔다.

이 때문에 엄격한 전시환경을 요구하는 유명 작품은 사실상 대거 불가능해 제대로 된 전시회는 기획조차 못하고 있다. 또 대형작품 반·출입 시설, 조명, 환기시설 등도 열악하다.

지역 사회에선 비엔날레 전시관은 부지 자체가 좁고 건축미도 떨어진다며 대체 전시관 건립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총 사업비 1500억원(국비

750억원, 지방비 750억원) 규모의 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사업계획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했다.

신축 비엔날레 전시관은 오는 2024년까지 비엔날레 주차장 부지에 연면적 2만 600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전시관에는 국제전시관, 참여교육공간, 아카이브, 홍보관, 편의시설, 행사지원 운영공간 등이 들어선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Forbes

광주 최초! 뉴욕 감성의  
첨단 비즈니스 지식산업센터

## 광주의 새로운 심장으로 떠오를 지식산업 핫플레이스! 허드슨 1041 첨단2지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첨단 지식산업 플랫폼  
광주 최초! 뉴욕 감성의 혁신 비즈니스 시대를 열다

분양금액의 최대 80%까지  
장기저리융자 가능

취득세 50%, 재산세 37.5%  
감면 등 세제혜택

최대 70억 한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청년창업, 스타트업 등 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입주예정

[사업개요]  
\*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1041번지 ※ 규모: 지하3층-지상15층 ※ 대지면적: 6,618.00㎡ | 지식산업센터 184실 | 근린생활시설 77실  
\* 용도: 지식산업센터(공정) 및 근린생활시설, 기타지원시설 ※ 건축면적: 3,498.68㎡ ※ 연면적: 37,879.33㎡ | 지상-창고 21실 | 운동 및 문화집회시설 3개소

8월 20일 오픈  
T.372-6666

새삼일건설 KAIT 한국자산신탁  
새삼일건설 KIBR 삼일루체아

홍보관: 광주 서구 마곡동 165-14